

2023. 6. 2.(금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6월 2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
노동정책담당관

| | | |
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
| 노동정책담당관 | 조 완 석 | 02-2133-5410 |
| 노동건강팀장 | 안 희 숙 | 02-2133-5431 |
| 담 당 자 | 윤 지 은 | 02-2133-5590 |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4쪽

서울시, 소규모 퀵서비스건물관리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 실시

- 산재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100곳 대상, 인력·예산부족 사업장 집중 지원
- 안전보건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위험요인 컨설팅, 안전관리 의무 등 맞춤형 대책 마련
-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도움, 대상업종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 계획
- 컨설팅 지원 대상 사업장(사업장별 2회 방문) 「서울시 위험성평가 실시 인증서」 발급 예정

- 곳곳에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어 노동자 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적 위험성 평가가 절실하지만 어렵고 복잡한 제도와 인력 부족으로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을 안전보건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무료 컨설팅을 해주고 개선방안도 제안한다.
- ‘위험성 평가’란 ‘산업안전보건법’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유해·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·결정해 감소대책 수립 및 실천 등 안전보건 과정 전반을 말한다.

<산재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100곳 대상, 인력·예산부족 사업장 집중 지원>

- 서울시는 50인 미만 취약·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법적 의무 조항인 ‘위험성평가’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.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사업장 스스로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.

- 시는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, 고용노동부 ‘중대재해감축 로드맵’을 통해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감독체계가 전환되는 등 사업장의 법적의무가 강해지고 있다며, 예산·인력 등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.

- 올해는 우선 위험요인 및 근로자 안전사고가 많은 산재취약업종인 ‘퀵서비스업’과 ‘건물관리업’ 사업장 100곳을 선정해 컨설팅을 진행한다.
 - 실제로 지난 5년간 서울지역 이륜차사고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14명이었으며, 이 중 11명(78%)이 지난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건물관리업 사망자도 지난 5년간 총 42명으로 주요인은 떨어짐 또는 넘어짐 사고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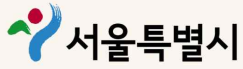
- 컨설팅은 안전보건 전문가,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‘안전보건지킴이 (총 25명)’가 사업장 2회 이상 직접 찾아 맞춤형 상담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.

- 1차 컨설팅에서는 사업장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, 사업장 스스로 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.
 - ‘퀵서비스업’은 신호위반, 중앙선 침범,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와 이륜차·차량 미점검으로 인한 사고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하고, ‘건물관리업’은 기계식 주차설비 작업이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중 추락을 비롯해 밀폐공간 작업 질식 등과 관련된 위험요인 파악을 지원한다.

- 2차 컨설팅에서는 1차에서 파악된 유해·위험요인과 사고 발생경험을 중심으로 사업장별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방안과 의무 등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.

- 위험성 평가 무료 컨설팅은 서울 소재의 50인 미만 건물종합관리업 및 퀵서비스업 사업장이면 신청가능하다. 신청방법은 서울시 누리집 (www.seoul.go.kr)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자 이메일(jjeun111@seoul.go.kr)로 제출하면 되고 선착순 마감이다.
 -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전화 2133-5590으로 문의하면 된다.

-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“산재취약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성 평가 컨설팅이 노동자의 안전사고와 직업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”이라며 “퀵서비스·건물관리업을 시작으로 취약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컨설팅 업종도 확대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

위험성평가의 어려움!

안전보건지킴이가 도와드립니다

위험성평가
쉽고 간편하게
알려줄게!



- **대 상** 서울 소재 50인 미만 퀵서비스업 및 건물종합관리업 총 100개소 ※ 선착순 모집
- **신청방법** 서울시 홈페이지 접속 > 고시·공고 > 신청서식 다운로드 및 제출
- **신청서류**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
- **제 출 처** jjeun111@seoul.go.kr
- **문 의 처** 02-2133-5590

• **컨설팅 절차**



접수신청



방문 컨설팅
(총 2회)



위험성평가



사업 공고 및 신청서

서울시가 위촉한 안전보건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
사업장 위험성평가에 대한 무료 컨설팅 제공 (총 2회)